



NEWS LETTER

2019년 4월 22일 Vol. 341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예방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임기관장 일행은 취임 인사를 위해 지난 4월 1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예방에는 동국대학교의료원 조성민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비롯해 이해원 병원장, 권범선 기획처장이 참석했으며, 불교종립 대학병원으로서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최근 진행된 백만원력결집 선포식은 종단의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이중 요양병원 건립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많은 도움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많은 스님에게 의료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성민 의료원장은 “현재 조계종 승려복지와 동국대학교의료원 기획처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면밀히 살피겠다.”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속에 발전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대한불교조계종 3대 불사 재원마련 선포식 참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4월 17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개최된 ‘백만원력결집 선포식’에 참여했다.

‘백만원력불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한국불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강조해온 종단 정책으로, 인도부다가야 한국사찰 3군본부 건립, 계룡대 영외법당 건립, 승려요양병원 건립 등 3대 불사건립을 목표로 조계종 백만원력 결집 추진을 위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광스님을 비롯해 동국대학교 윤성이 총장,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이해원 병원장 등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 각급 기관장이 동참했다.

참여 방법은 불교계 공익법인 (재)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CMS와 자동이체, ARS 저금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며, 한 계좌에 매월 3000원으로 기부액이 정해졌다.



소림사 도일스님, 전공의 복지를 위한 기금 전달

부천 소재 사찰 소림사 도일스님이 지난 4월 2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복지기금으로 3천만 원을 쾌척했다.

기부금을 전달한 도일스님은 “은사이신 일원스님이 입적하시기 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연구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기부의 뜻을 밝히셨다.”며, “특히 병원 진료의 큰 축인 전공의들의 복지를 위해 기부하게 됐다. 스님의 숭고한 뜻이 전공의들을 통해 병원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이해원 병원장은 “소중한 정재를 보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불교종립병원으로서 후대 의료계를 짊어질 전공의들의 교육 및 복지를 위해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시설관리팀은 환자와 직원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2019 안전사고 예방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시설점검은 2019년 의료기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에 따른 것으로, 주요 점검 항목은 ▲의료법 2종 16항목 ▲건축물 3종 38항목 ▲전기 9종 51항목 ▲가스 7종 26항목 ▲소방 33종 137항목 ▲승강기 2종 10항목 ▲보건·위생 4종 28항목 ▲옹벽 3종 14항목을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물 확인을 위해 원내 소방시설물을 대상으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관리상태 확인 ▲스프링쿨러 작동 여부 ▲피난구 유도등 점검 등 전반적인 시설물 기능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시설 점검을 통해 시설관리팀 담당자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원내 진료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